

< 2026 교육실습 내러티브 >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0220065 김하솜
실습 학교: 백영고등학교

1주차	
5월 4일(월)	<p>오늘은 교생 실습 첫날이다. 드디어 4년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직의 길을 걸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실습해 보는 날이 오다니 매우 긴장되었다. 아침에 담임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같이 아침 조회를 하러 1-7반으로 갔다.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앉히시더니 소개 없이 바로 내 시간을 주셔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아이들에게 했다. 오티에서 명렬표를 받았을 때 보다 실제로 아이들과 한명 한명씩 눈을 맞추며 인사하니 실감이 났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줬고 복도에서 먼저 아이들이 다가와 줬다. 첫날은 하루종일 연수가 있는 날이어서 김영순홀에서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연수를 들으면서 더욱더 교사의 가치관과 실습에 임하는 자세를 점검했던 것 같다. 첫날은 연수 때문에 아이들을 조, 종례 밖에 못 만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다가와 줘서 더욱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5월 7일(목)	<p>오늘은 8:00~8:20까지 정문에서 등교지도를 하였다. 학생부 선생님께서는 안전을 위해 교문 앞에 차가 멈추지 못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교육받은 후 지도하였다. 실제로 문 앞에 정차하고 나가던 중 차가 급한 사건도 목격하게 되면서 등교지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 어제 종례시간 1-7반에게 등교하면서 선생님께 윙크하며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했고 정문에서 7반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등교지도를 하니 아침부터 행복했다. 오늘은 종교교과 참관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광고속에 숨어있는 심리학을 주제로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광고 속에 숨겨져 있는 기법들을 발견하고 팀의 색깔에 맞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또한 교목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잘한점, 보완할 점을 발표하면 팀별 점수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수업에 참여시키는 점이 좋았던 것 같다.</p>

2주차	
5월 11일(월)	<p>오늘은 교생 첫 수업을 진행했다. 6반에서 감정컨트롤본부와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지도안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긴장된 건 사실이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이 잘 진행되었지</p>

	<p>만, 첫 수업인 만큼 예상했던 시간보다 수업이 빨리 끝나버려서 아쉬웠다. 수업을 하면서 시연해 보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수업을 빨리 끝내더라도 그 뒤에 추가된 활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이 끝난 뒤 6반 여학생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상담 신청을 받게 되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메시지를 심어주고 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뿌듯하면서 성장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p>
5월 15일(금)	<p>오늘은 아침 조례시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7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축하를 해주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도 예뻐 하루 종일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오늘은 2학년 기하 수업을 참관했다. 기하 수업이 어려운 과목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ppt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도형의 면을 확인해 보고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중간, 중간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수학적 공식을 인기 가요 멜로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에 깊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문과였던 나도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다.</p>

3주차

5월 18일(월)	<p>2교시에 105 인간과 심리 수업을 진행했다. 월요일 2교시라 학생들이 많이 피곤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수업 시작 인사를 힘차게 하고 2차시 나를 이루는 나의 섬이라는 주제로 방향과 선택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수업의 내용, 흐름, 활동 체계가 매끄럽게 이어졌고 특히 1차시 수업을 했을 때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딱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어서 좋았다. 늘 교사는 준비된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하며, 목사님과 교생 선생님께서 해주신 피드백을 통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p>
5월 21일(목)	<p>오늘은 103, 106반 인간과 심리 과목을 참관하면서 종교 교생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탐구하러 갔다. 선생님들께서는 1차시 수업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지만 각자 교생 선생님의 스타일과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모둠형 수업이 진행된다면 아이들이 통제되지 않은 채 수업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된 수업 시간이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수업 분위기 유지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규칙과 풀어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올바른 수업이 세워진다고 설명해 주셨다.</p>

4주차

5월 26일(화)	<p>벌써 교생 기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아쉬움이 다가왔다. 학생들과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늘은 2,3교시 때 야외수업이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고, 실제 야외에서 진행하</p>
-----------	---

	<p>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분하게 교생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대처하니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었다. 이날 너무나도 더운 날이었지만, 이 야외 활동을 통해서 각 주제들에 관련된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이 게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수업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도 열려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p>
<p>5월 29일(금)</p>	<p>오늘은 교생 실습 마지막 날이다. 4주가 너무 금방 지나갔다. 특히 5월 초에 연휴가 있어서 더 짧았다. 4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즐겁게 수업한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라는 사실에 눈물이 차올랐다. 1반부터 6반까지 수업을 했는데 7반부터 12반까지는 수업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 내 담당 7반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했다. 그래도 다행히 3교시가 7반 담임선생님의 수업이어서 선생님께서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4주 동안 좋은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나의 교사라는 꿈을 이루었던 날들이었다. 이 기억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순간들이었다. 모든 백영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다른 교생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싶다.</p>